



칼럼

창간 서른돌... 감회

■ 최운홍/ 한국작물보호협회 고문

「생활과 농약」이 이번호로 창간 서른 돌을 맞았습니다. 1980년 4월 「농약과 식물보호」라는 제호를 달고 독자들에게 창간 인사를 드린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0주년을 맞이했으니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하고 감회가 남다릅니다.

1980년 1월 29일 임시이사회에서 농약안전사용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3월 1일자로 홍보실을 신설하여 필자를 비롯해 3명의 팀원이 발령받아 한 달 동안의 산고를 거듭한 끝에 햇빛을 보게 된 잡지가 「농약과 식물보호」였습니다. 편집계획을 세우고 원고청탁에 독자카드 작성, 회원사에서 차출된 여직원들과 함께 일일이 수작업으로 발송하는 등 야근의 연속이었지만 보람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사실 197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농약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농약공해라는 단어가 본격 등장한 것도 이때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산물의 안전성과 환경공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학자나 NGO단체들은 서로 경쟁이나 하듯 농약공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매스컴은 이를 확대 보도함으로써 농약이 환경공해의 주범인양 잘못 인식되어 농약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은 환경학자나 매스컴이 사실을 확인하는 당연한 절차를 갖지 않은 채 발표 또는 보도한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 및 계도사업을 소홀히 해온 업계의 책임도 한몫 했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태어난 「농약과 식물보호」는 순수한 농약안전사용 계도 전문지로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이 농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과 야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약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효율적인 병해충 및 잡초방제에 초점을 맞추어 발행되었으며 농촌지도기관 및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1993년부터는 좀더 알찬 내용과 짜임새 있는 편집으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농약정보」로 제호를 변경하고 책의 크기도 4×6배판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소비자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생활과 농약」으로 제호를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상매체의 홍수 속에서 또 다양화 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잡지라고 하는 매체는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입지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 연구가인 프랭크 모토(Frank Mott)씨는 잡지의 정의에 대해 첫째 내용의 다양성과 전문성, 둘째 정기성, 셋째 제본성, 넷째 팜플렛성, 다섯째 교육과 계몽성, 여섯째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접합, 일곱째 문화 창조와 통합적 기능을 꼽고 있습니다. 더욱이 잡지란 전문 정보매체이자 정보·지식 사회의 기간산업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본지가 한번의 결호도 없이 이만큼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도 있었지만 제일 큰 힘은 독자여러분의 성원이었다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생활과 농약」은 창간 30돌을 맞아 다양한 정보와 깊이 있는 내용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전문잡지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독자여러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찍질도 해 주십시오. Y